정추 타계 1주기 추모공연

내달 2일 양림동 우월순 사택 앞

근대문화거리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 2번째 공연이 음악가 정추 타계 1주기 추모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순수'는 오는 8월 2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앞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양림동 출신 음악가 정추를 기리는 추모 음악회다.

공연의 테마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너무 그리워'.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김소월의 시 '가는 길'에 나오는 구절로 고향에서 잠들지 못한 영원한 디아스포라 정추를 추모하는 의미다.

김백호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시작으로 CBS어린이 합창단이 '뗏목의 노래', '도라지'를 들려주고 독일 재즈뮤지션 피터 에발트가 정추의 곡을 샘플링한 재즈 두 곡을 선보인다. 이어 지역 문인들과 연극인들이 참여해 정추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기릴 예정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나주박물관 10만번째 관람객

개관 8개월만에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이 29일 10만 번째 관람객을 맞았다. 지난해 11월22일 개관 이후 8개월만이다.

이날 10만 번째로 입장한 관람객은 여수에서 온 유숙영(사진 오른쪽)씨로 여름방학을 계기로 박물관을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유씨는 "우연히 10만 번째 관람객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다시 찾고 싶다"며 "나아가 나주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중환 관장은 유씨에게 제주도 왕복항공권 2매, 향후 5년간 박물관 발간 책자 무료 증정권, 꽃다발 등을 증정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유적지(반남 고분군) 옆에 세워진 박물관이다. 특히 개방형수장고와 다양한 영상, 체험전시, 스마트폰 전시안내시스템 등 첨단 전시기법을 갖추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Gwang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상영작 확정 … 25개국 91편

평화를 위한 기억

개막작 '봄'

폐막작 '베를린 장벽'

개막작 조근현 '봄'…폐막작에 '베를린 장벽'

中 '노 이발사'·'명장 위츠공' 국내 첫 상영

광주시민 영상전·한중영화포럼 등 행사 다채

8월 28일~9월 1일 충장로 롯데시네마 등서

'올해 광주국제영화제(GIFF)에서는 어떤 영화들을 만날까.'

(사)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29일 개폐막작 등 상영작을 발표했다. '평화를 위한 기억(Re-member for peace)을 주제로 오는 8월28일~9월1일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25개국 91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26년'의 조근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봄'이 선정됐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을 배경으로 생애 마지막 모델을 만난 조각가에게 찾아온 사랑을 리고 있다. 아리조나, 밀라노, 달라스, 마드리드 영화제 등에서 작품상, 촬영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여주인공 역을 맡은 김서형과 이유영은 각각 마드리드 영화제와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조근현 감독과 박용우·김서형 등 주연 배우가 개막식에 참석하고 29일에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린다.

폐막작은 독일 크리스찬 슈뵈초브 감독의 '베를린 장벽'이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동독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GIFF초이스 섹션에서는 한국계 캐나다인 제이슨 리 감독의 '평양에서 온 편지'가 상영된다. 감독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의 행적을 좇아 평양으로 건너가 제작한 다큐로 팜스프링스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최고상 수상작이다.

또 재일동포 출신인 양영희 감독이 북한과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흥미롭게 바라본 '굿바이 평양'과 박봉남 감독이 만든 DJ 다큐멘터리 '김대중'도 상영된다.

휴머니티 비전 섹션에서는 노래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 추이젠 감독의 '남색골두',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딸과의 화해를 위해 마드리드로 떠나는 내용을 그린 '파비스씨의 마지막날' 등 4편이 상영된다,

중국영화특별전-시네마 실크로드에서는 차오루 감독의 '노 이발사', 한 쯔 감독의 '명장 위츠공' 등 국내 첫 상영작 6편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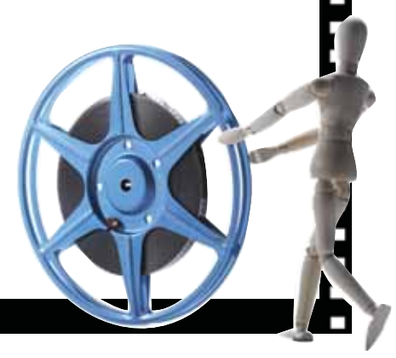
패밀리 시네마에서는 입양아 출신 덴마크 만화가 융이 연출을 맡은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 독일 산악 원정대의 이야기를 그린 '운명의 산 낭가파르밧' 등이 상영되며 '브레이브 래빗' 등 애니메이션도 꼬마 관객들을 찾는다.

김동원 감독 특별전에서는 '송환' 등 3편이 상영되며 버스트 키튼 특별전에서는 '제너럴', '우리의 환대'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한국 영화의 새로운 시선, 국내외 단편 걸작선, 광주시민 영상전 등도 마련돼 있다.

그밖에 한중영화포럼(8월 29일 전남대), 글로벌 시네토크-동서양의 크로스오버(30일 충장로 달콤 커피숍), '용이 된 남자, 이소룡의 삶과 정무문' 강연(29일 롯데시네마)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영화제에는 위검홍 중국전영학원 부원장, 설 영 산서성 광전총국 부국장, 육봉 섬서성 서안시 광전총국 북구장, 고준 중국배우, '파비스씨의 마지막날'의 헨릭 페셀 감독(독일), '레코드'의 미하일 레드 감독(필리핀) 등이 광주를 찾는다. www.giff.org.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



양나희 작 '주가각'

중국에 간 예술검객展

8월1~24일 예술의 거리 궁다방

2014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무들마루는 8월1~24일 예술의 거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궁다방에서 '중국에 간 예술검객'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중국 상해를 4박5일 간 여행하고 돌아온 작가 김동아·김윤영·성혜림·양나희·엄기준·이재호씨가 여행에서 얻은 개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행 전시다.

김윤영씨는 급박하게 변해 가는 상해 모습을 중국 전통문양이 담긴 부엉이 조각 작품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김동아씨는 자전거를 주제로 윗옷을 벗어 젖힌 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저씨 등을 종이 위에 그렸다.

성혜림씨는 전통 의상을 입은 중국 여성의 모습을 통해 상해의 화려함과 이면의 또 다른 모습을 화폭에 나타냈고, 양나희씨는 '상해의 베니스'로 불리는 주가각의 정취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골판지와 유채물감으로 담았다. 엄기준씨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엉켜 있는 중국의 '산업전쟁'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품에 탄흔을 표현했고, 이재호씨는 중국인들의 말과 억양을 작품에 옮겼다.

8월1일 오후 6시30분에는 오픈 파티가 열린다. 파티 컨셉 컬러는 빨간색이다. 문의 070-7677-92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주민 위한 문화사업 본격화

광주문화재단, 내달 2일부터 '별별워크숍'

광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여성, 새터민 등 이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1억60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난 5월 아프리카 전통 젬베 교육을 진행하는 '아시아청소년노리단'을 시작으로 '가족아카펠라음악단', '미디어로 말걸기', '별별워크숍', '레인보우 페스티벌'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시작된 '아시아청소년노리단'과 '가족아카펠라음악단'은 기획 단계부터 이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국적 가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특강 및 힐링워크숍인 '별별워크숍'은 오는 8월 2일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되며, 10월말께 4개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레인보우 페스티벌'로 마무리된다.

한편 2012년부터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소수·세대·하위·종교 문화 등으로 지원 범주를 확대했다. 광주문화재단은 3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